



더 나은 미래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HANSEN

2021 9·10월호

통권
제108호

모든이에게 사랑과 소망을

HANSEN

한센

Vol. 108 2021

9·10



가을, 내겐 정말
거대한 행복이야!



02 인사말

시야는 넓게 생각은 깊게

● 한센 포커스

04 스페셜 리포트

한센 가족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 안내

06 한센 리포트

- 배움행복마을 교육 수료식
- 한센인(병)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조사 보고서 발간
- 한국농수산유통공사 후원금 전달식
- 호암마을 치유공간조성 정책 세미나
- 서산시대와 한센현안 관련 인터뷰
- 시·도지부장 회의
- 간이양로주택 실태조사
- 하돈 고문님 소천
- 질병관리청과 한센사업 관련 회의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와 사업 관련 논의

● 한센 탐방

18 지부는 지금

- 국민권익위원회, 거창마을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 청취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양지마을 봉사활동
- 도성마을 갤러리 개관
- 추석맞이 희망나눔 봉사 활동

24 유관단체 동정

- 한국IDEA협회
- (사)한국한센복지협회

26 한국한센역사속인물

로버트 월슨 선교사

● 한센 공감

32 소통하는 한센

- 소록도 국가사적 지정 추진 학술대회
- 이춘상 6·20의거 기념조형물 기초 공사

36 함께하는 한센

- 영호 배움행복마을교육 소감문
- 최선을 다하는 삶
- 늙음의 세월
- 풍요로운 계절

42 한센이 만난 사람

이지선 한동대학교 교수

● 한센 이모저모

47 정착마을 풍경

금성마을

50 정보 알리미

- 우리는 아직도 숨 쉬는 방법을 모른다
- 가을 면역력을 높이는 과일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체계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체계 일문일답
- 몸이 차가우면 이런 증상이 생겨요

60 배움교실

- 요즘 이 책
- 이달의 시자성어
- 중국어 교실

62 독자들의 공간

- 낱말퀴즈
- 한센계시판
- 후원자 모집



한센인과 함께 만드는 종합정보소식지 **한센**

제19권 제5호 통권 제108호

※ 본 책자는 일반회계(국고지원)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발행일 2021년 9·10월호 발행

발행·편집인 이길용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한센총연합회

주소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전화 1566-2339 / 팩스 1566-2032

홈페이지 www.hansenkorea.org

이메일 hansen@hansenkorea.org

디자인&인쇄 성립디엔피

격월간 비매품



시야는 넓게 생각은 깊게

사랑하는 한센 가족, 후원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에 하늘도 더 높아진 10월입니다. 어느덧 푸릇푸릇한 새싹이 고개를 내밀었던 봄과 여름이 지나고 곡식들이 결실을 거두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는 어떠하셨습니까? 희망찬 2021년 새해를 맞은 것이 엿그제 일 같은데 벌써 올해도 두 달 남았습니다.

먼저, 지난 여름동안 무더운 날씨, 코로나19 재확산과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총연합회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총연합회 임직원과 한센 가족분들의 노고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총연합회는 지난 9월 영호마을 배움행복마을 교육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배움행복마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변함없는 학습의 열정을 선보인 한센인 어르신들과 풍성한 교육을 선

사해준 강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앞으로도 한센인 어르신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어르신들이 배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더불어, '한센인(병) 일반국민 인식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한센인(병)에 대한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정확한 정보 전달과 관련 법안 제정 및 효과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한센 가족들의 풍요롭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위한 후원금을 받아 한센 가족들에게 잘 전달하였으며, 질병관리청,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등과 사업 자문 및 컨설팅, 총연합회 미래 발전 방향

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총연합회는 한센인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복지사업 기획 및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권, 복지 분야 전문가 및 단체와 소통하며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센 가족, 후원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는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고 사회와 경제뿐만 아니라 생활의 습관까지 많은 측면을 변화시켰습니다. 모든 단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커다란 흐름과 변화를 읽지 못하면 오래 생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센 가족들의 복지현장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요구하는 과제들이 많아졌습니다. 불가피한 비대면 상황에서 한센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과제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총연합회는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복지 옷을 만들고 입을 수 있도록 임직원

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소통해야 합니다. 과거의 생각에 머물기를 소망한다면 이미 퇴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기를 늘 힘쓰며 새로운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답답한 일상을 보내고 계신 모든 국민들의 상심이 클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꾸준하게 이겨내고 있는 방역당국 및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하고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난히도 힘들었던 지난 여름, 무기력했던 몸과 마음이 늦가을 바람 속에서 활기를 찾고 모든 이들이 쏟아 부었던 땀과 노력이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사)한국한센총연합회 회장 이길용

한센 가족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 안내

1. 일본 한센 가족들에 대한 보상 판결

- 일본 정부는 과거 일제강점기하 소록도에 강제격리 · 노동을 당한 한센피해자들에게 일본 한센보상법을 제정하여 보상을 실시한 바 있음
- 이후 한센인 가족들이 일본 구마모토 지방법원에 제기한 보상청구소송 또한 2019. 6. 28. 승소 판결하였고, 이에 일본 정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 취지에 따라 2019. 11. 15. 한센병원환자가족보상법을 제정하여 한센인 가족들에게 보상을 실시하고 있음
- 위 한센가족보상법은 격리 정책으로 인한 한센 가족 피해를 인정하고 사죄 · 반성을 표하면서, 한센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고, 그 명예회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한다고 밝힘

2. 보상 청구의 내용

- 보상금은 친자, 배우자 180만엔, 형제자매 130만엔 등
- 청구시한은 2024. 11. 24.까지(한시법)

3. 청구자 및 원환자

- 가족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분(이하 청구자)은 일제강점기하(1945. 8. 15.)에 한센병이 발병된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이하 원환자)를 둔 가족
- 청구자는 1945. 8. 15. 이전 출생자로서 생존하고, 한센병 발병여부 불문
- 원환자는 1945. 8. 15. 이전 발병자로서 소록도 입소 및 사망 여부 불문
- 원환자가 일본으로부터 소록도 보상을 받은 경우도 가능
- 사실혼 배우자도 해당하나, 혼인일시는 1945. 8. 15. 이전이어야 함

4. 청구시 필요 서류 (예시)

- ① 원환자 일제하 한센병 발병사실 증명서류 : 한센등록(관리)카드, 한센사업기록표, 소록도 입소증명서, 교적부, 세례명부, 소록도 보상결정문 등
- ② 청구자가 원환자의 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 일제 또는 해방후 구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③ 청구자가 1945. 8. 15. 이전 출생자로 생존한 사실 : 주민등록 초본
- ④ 청구자 은행계좌 사본
- ⑤ 기타 입증서류

5. 안내 및 문의

- 현재 한국 변호사들은 '한센가족보상청구변호단'을 구성(단장 조영선 변호사)하여 일본 변호단과 업무협의를 하고 있음
- 2021. 9. 10. 기준 125명(1차 62명, 2차 63명)을 일본에 송부하였고, 조만간 첫 보상결정이 날 예정
- 한센가족보상 청구는 원환자(한센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사회와 국가로부터 차별과 편견을 받아왔던 것에 대한 사죄이자 보상
-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조영선 변호사, 이정일 변호사로 연락 요망
전화 : 02-3482-6195
팩스 : 02-3482-8422

한센가족보상청구변호단



영호마을 배움행복마을 교육 수료식 개최



지난 9월 8일(수) 영호마을(전남 영암군, 대표 서금순)에서 배움행복마을 종강식을 개최했다.

이날 종강식에는 배움행복마을 교육을 수료한 어르신 17명을 비롯하여, 교육 강사와 마을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수료증을 전달하고 개강식 이후 3개월 간 함께한 발자취를 되짚어 보고 서로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움행복마을 교육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한센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터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의 실현을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지원을 받아 총연합회가 매년 추진하고 있는 한센인 평생교육 사업이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생업으로 바쁜 일상과 편찮으셔서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 하나로 마을 복지관에 모여 민화를 그리며, 알록달록 천을 이용한 공예품을 만들며 동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주요내용은 △ 스마트폰을 활용 교육 △ 아로마 친환경 생필품 만들기 △ 자존감 높이는 공예교실 △ 해피바이러스 보드게임 등으로 구성됐다.

한 어르신은 “어린 시절에 학교를 다닐 수 없어 배우지 못한 설움이 있었다”며 “몇십여 년이 지난 후 주민들과 함께 학습하는 시간이 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길용 총연합회장은 “배움행복마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멋진 학습의 열정을 선보여 주신 영호마을 한센인 어르신들과 무더운 여름 긴 시간 함께 해준 강사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보낸다”라며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앞으로도 한센인 어르신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어르신들의 평생 교육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을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동 교육과 종강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손소독제 사용,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맛있는 요리 만들기



▲ 화분 가꾸기



▲ 스마트폰 교육



▲ 작품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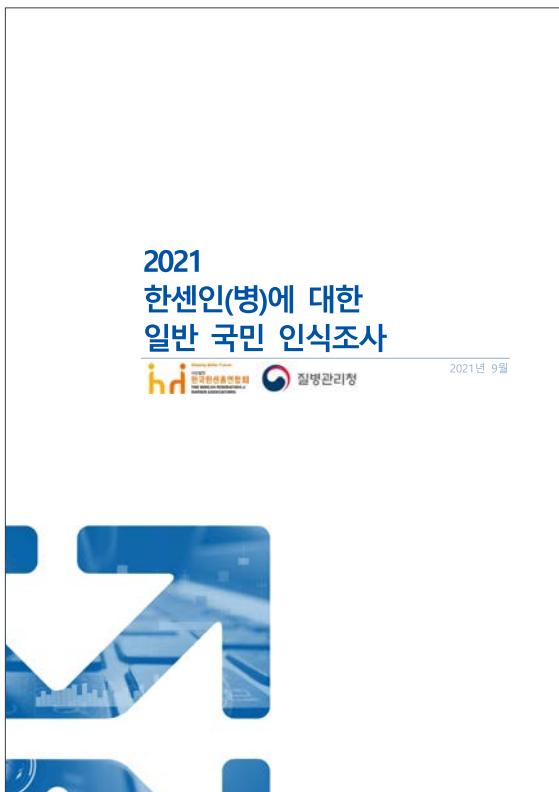


▲ 교육 결과물



▲ 교육 결과물

‘한센인(병)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조사 보고서’ 발간



우리 총연합회는 일반 국민들의 한센인(병)과 관련된 인식 조사 결과인 ‘한센인(병) 일반국민 인식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한센인(병)에 대한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정확한 정보 전달과 관련 법안 제정 및 효과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의 지원을 받아 발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17일부터 열흘 간 전국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 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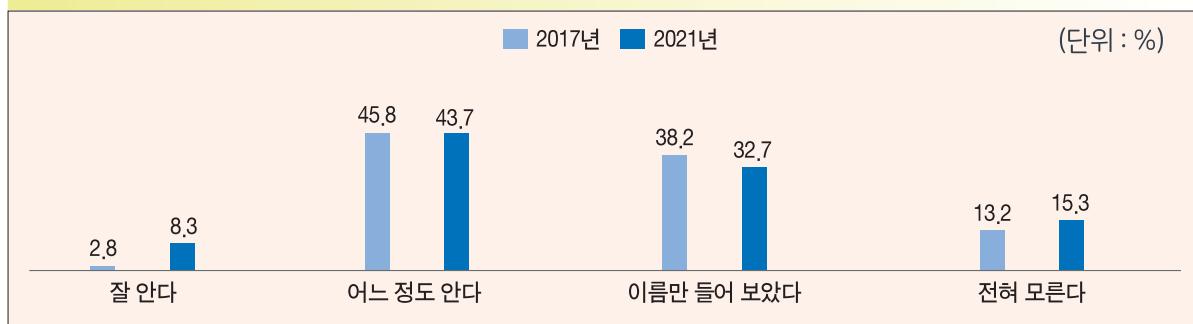
보고서는 조사개요, 조사요약, 조사결과 등 총 3장으로 구분되어, 한센인(병)에 대한 인지 및 이해 정도, 한센인(병) 차별 해소를 위한 고려사항, 한센인(병) 정보 습득 및 홍보 등에 대하여 다뤄졌다.

우리 총연합회는 이 보고서가 향후 한센인(병) 관련정책·제도를 시행하는데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총연합회 사업에도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한센인(병)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조사 주요 결과

Q

한센병 또는 한센인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Q

한센인(병)을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잘 안다'와 '어느 정도 안다'를 답하신 분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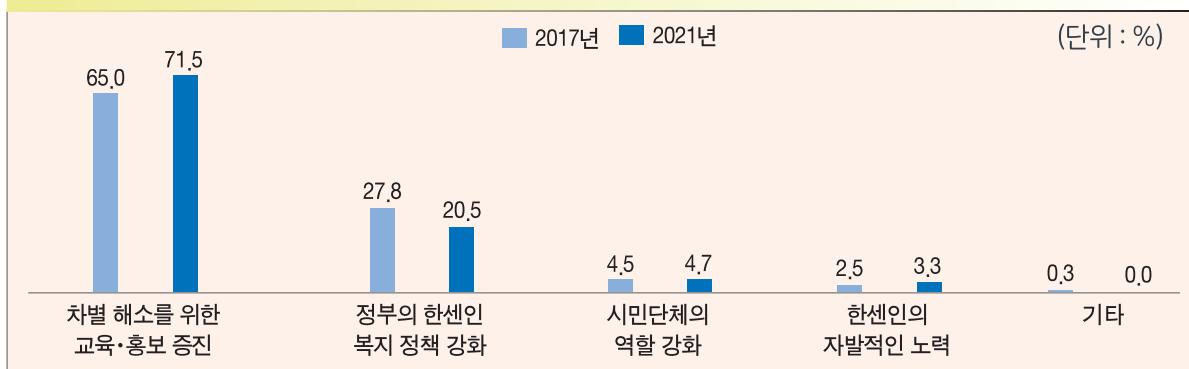
Q

한센인 편견 해소를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

한센인 차별 해소를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추석맞이 이웃사랑 후원금 받아



▲ 이길용 총연합회장과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왼쪽부터)

우리 총연합회는 지난 9월 15일(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aT)로부터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센 가족들의 풍요롭고 따뜻한 명절을 위한 후원금을 지원 받았다.

총연합회에서 진행된 후원금 전달식에는 이길용 총연합회장과 김춘진 aT 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하여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약식으로 개최됐다.

aT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인 한센 가족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후원금을 전달함으로써 한센 가족들이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고 삶에 활기를 불어 넣고자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길용 회장은 “aT의 애정과 후원에 감사하며, 고귀한 뜻에 따라 후원금은 한센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춘진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명절을 보내고 있을 한센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기 바란다. 앞으로도 한센 가족들을 위한 이웃사랑나눔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춘진 사장은 17대 국회의원 시절 소외계층인 한센인 인권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해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해 2007년 9월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후 한센인에 대한 꾸준한 관심으로 2010년 세계한센포럼조직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17개국의 1000여 명이 참석한 국제대회를 개최하며 한센인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활동했다.

호암마을 치유공간조성 정책세미나



이길용 총연합회장이 지난 8월 31일(화) 호암마을(동혜 마을, 전북 고창군, 대표 방부 혁)에서 개최된 ‘호암마을 치유공간조성 정책세미나’에 참석했다.

고창문화도시지원센터와 마을 공동체지원센터가 마음치유문화마을 시범사업에 손을 잡고 동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는 고창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호암마을과 고창문화도시지원센터가 주관하는 마음치유문화마을 시범사업으로 마을공동체 형성 노하우, 치유문화 콘텐츠 모색 등 공동체 네트워크를 심화한 것이다.

치유공간이 삶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고찰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이길용 총연합회장을 비롯하여 방부혁(호암(동혜)마을 대표), 김영주 고창문화도시지원



▲ 이길용 총연합회장

센터 치유사업팀장이 토론자로 나서 치유문화도시고창이 마음치유문화마을 시범사업을 통한 정책적 고민을 공유하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들은 지난 6월 무장면 조치마을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등 협력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길용 총연합회장, 서산시대와 인터뷰 가져



이길용 총연합회장은 지난 10월 20일(수) 총연합회에서 서산시대(발행인 최희재) 및 부여방송(발행인 손종명)과 만나 ‘한센인 정착마을에 대한 지원정책의 미진함과 복지증진 방안, 사라지는 정착마을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인터뷰는 충청남도 지원으로 기획된 취재로 그동안 국가의 강제격리정책으로 인하여 한센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역시 낙인과 차별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어왔고, 한센인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센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 등이 마련되었으나 한센인의 피해를 회복시키기에는 미진하고, 한센인의 고령화까지 직면해 있는 상황으로 이에 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번 인터뷰에서 이길용 총연합회장은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 개선방안, 한센인 피해보상과 그 대상의 확대 등 한센인과 정착마을이 직면해 있는 현안 개선방안 등에 대한 고견을 전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한센인과 한센인 정착마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총연합회는 지속적인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국가 및 국민들의 적극적인 한센인 지원과 관심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주요 한센 현안 논의를 위한 시·도지부장 회의 개최



우리 총연합회는 지난 9월 16일(목) 이길용 총연합회장(이하 이회장)을 비롯하여 시·도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특별시에서 시·도지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안전하게 개최됐다.

이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가장 힘든 한 해 동안 현장에서 지부를 이끌고 있는 지부장님들께, 회장으로서 감사드린다. 총연합회의 운영은 여기 계신 지부장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총연합회와 한센 가족의 미래에 대한 해법을 제시와 화합의 지혜가 모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속 총연합회 하반기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지부와의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방안 등을 모색했다. 우리 총연합회는 총연합회와 한센 가족이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한센 가족 지원 사업 발굴 및 확대, 한센 가족 인권 신장을 위한 대외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센 가족에 대한 안전과 복지를 위해 전 임직원이 끝까지 힘을 한데 모아 지원할 것을 당부하며 회의를 마쳤다.

한센인 정착마을 간이양로주택 실태조사 실시

우리 총연합회는 한센인 정착마을의 주거환경 파악과 개선을 위한 ‘정착마을 간이양로주택 실태 사전 조사’를 지난 10월 6일(수)부터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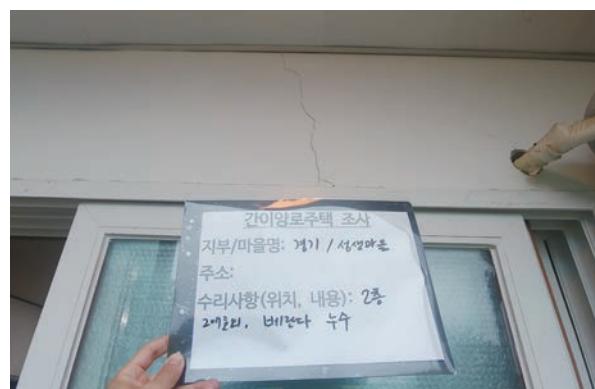
실태 조사에 앞서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10 일간 지부의 협조로 간이양로주택 점검표를 받았으며, 추후 이를 근거로 직접 정착마을 현장에 나가 정착마을 대표 및 관리자와 간이양로주택 시설 운영 상황 및 개선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간이양로주택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자료 구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건립연도, 유지보수연도, 보조요원, 취사 및 세탁여부, 입주 인원, 유지보수내용, 유지보수시급성 등이다.



▲ 10월 15일(금) 실시한 상신마을(경북 문경시) 간이양로주택 조사



▲ 10월 6일(수) 실시한 성생마을(경기도 남양주시) 간이양로주택 조사



▲ 10월 15일(금) 실시한 성심마을(경북 상주시) 간이양로주택 조사

謹弔

한센인들의 버팀목이신 허돈 고문님 소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루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주신 故허돈 고문님께서 지난 10월 20일(수)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한결같이 지켜오신 그 깊은 뜻을 저희들이 알기 위해 그 뜻 받들어 한센인 인권 신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겠습니다.

영광의 영지 안녕히계시라

故허돈 고문 약력

1928년 4월 25일 경기도 평택시 죽벽동 77번지 출생

평택중학교 졸업

박태남 권사와 결혼(슬하 1남 1녀)

1988년 11월 10일 청농교회 장로임직

1993년 ~ 2021년 한국IDEA협회 부회장, 고문, 자문위원

1994년 5월 31일 김영삼 대통령 표창장 수여

1995년 ~ 2021년 한국한센총연합회 이사, 고문

1996년 한남노회 제76회기 부노회장

1998년 4월 26일 청농교회 장로 은퇴

이명박 대통령 표창장 수여

한국한성장로회연합회 회장 및 고문

한국군선교경인지회 이사

한남노회장로회 회장

청천농장 회장

신명보육원 및 노인요양원 이사장

중국 연길시 유신교회 외 다수 건축

중국 연길시 조선족 목회자 20여명을 섬김

질병관리청과 한센사업 관련 회의



우리 총연합회는 지난 9월 14일(화), 27일(월) 질병관리청과 총연합회 한센사업 추진 방향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총연합회 하반기 사업 추진 계획,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등 복지 전문 단체 및 전문인과의 자문 내용 등을 공유하고, 정착마을 간이양로주택 실태조사에 대하여 논의했다.

아울러, 현재까지의 총연합회 사업 추진 실적 및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고 향후 대책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와 사업 방향 및 핵심 사업 관련 논의



▲(출처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우리 총연합회는 지난 9월 7일(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를 방문하여 주윤정 교수와 사업 자문 및 컨설팅, 총연합회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주윤정 교수

주윤정 교수는 경제학, 문화학, 복지학 측면에서 취약한 정착마을을 우선하여 지원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조사표 등을 활용하여 정착마을에 대한 기록을 쌓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고령의 한센인을 위한 사업은 살아온 방식에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제언했다.

아울러, 한센 역사에 대한 연구 자료가 부족하므로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초 연구 지원 사업(논문 공모 등)의 추진을 제안하였고, 최근 인권 관련 교육의 증가 추세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한센 관련 인권 교육 사업, 역사 전문가를 통한 한센 역사 기행 사업을 추진했다.

회의 말미에는 한센인의 인생을 컨텐츠로 기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동, 한센사업의 DB화 사업을 제언했다.

우리 총연합회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한센인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복지사업 기획 및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권, 복지 분야 전문가 및 단체와 소통하며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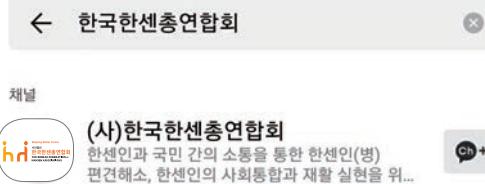
총연합회 카카오톡

+ 채널 추가하는 방법

1.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아이콘을 터치한다.



2. 한국한센총연합회를 검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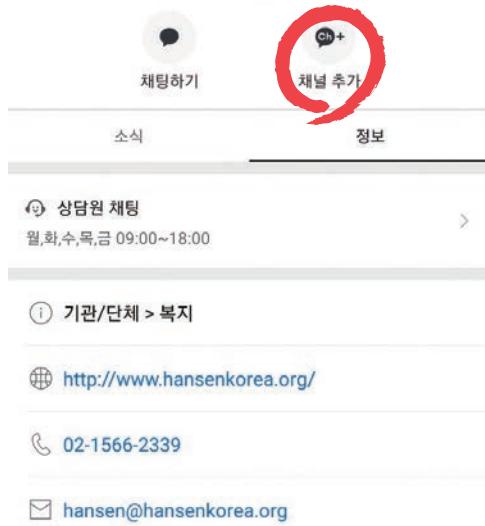
3. 채널 추가하고 다양한 소식 받아보기



(사)한국한센총연합회

친구 81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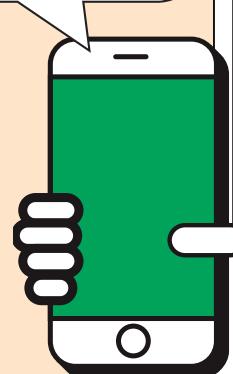
한센인과 국민 간의 소통을 통한 한센인(병)
편견해소, 한센인의 사회통합과 재활 실현을 위한
단체입니다



언택트시대에도
당신의 온기로 채워지는
따뜻한 세상



QR 코드를 스캔하면
카카오톡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거창마을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 청취



근 취수원 주오염원 문제로 축산업이 전면 중단됐다. 현재 주민들은 별다른 소득 없이 기초생계수급 등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더욱이 축산업 중단 이후 마을 내에 방치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대규모 노후 폐축사와 폐건축물 등에 둘러싸여 있어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했고 인근 하류지역에 낙동강 및 취수원이 위치해 수질 오염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인근 지역의 주민까지 생활 불편을 겪고 있다.

15일 오전에는 고충청취와 현장답사, 오후에는 관계자 회의를 통해 한센인 정착마을의 현안사항과 개별 민원사항 등 9건의 상담이 진행됐고 주민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방문을 통해 노후 주거환경 및 방치된 폐축사 등으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지원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거창마을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 청취로 폐축사 등 유해 환경에 노출된 주민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는 물론,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대책을 강구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수) 거창마을(경남 거창군, 대표 신동은) 경로당에서 마을 주민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센인 정착마을의 복지 환경 정비를 위한 현장 실태조사와 주민 고충상담을 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올해 시행하고 있는 전국 한센인 정착마을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거창마을은 1953년경 한센인들이 한 지역 복지가의 도움으로 덕유산 자락 비탈진 계곡이 위치한 곳에 정착하면서 조성된 마을로 현재 24세대 49명이 거주하고 있다. 주민 대부분은 고령이며 저소득층으로 그동안 축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해오다 마을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어 2019년경 주변 마을의 민원과 인



▲ 거창마을 폐축사 앞 실태조사



▲ 거창마을 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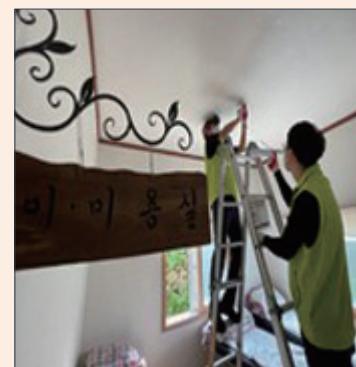
자료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양지마을 시설보수 봉사활동 실시



▲ 양지마을 해피하우스 시설보수 봉사활동에 참여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직원들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지난 9월 9일(목) 양지마을(경남 김해시, 대표 나규상)에 위치한 양지해피하우스를 찾아 시설보수 봉사를 실시했다.



양지해피하우스는 한센인 정착마을 주민들이 점차 고령화되고 외부와의 소통이 힘든 점을 고려하여 일상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어지고 있는 복지시설로 이·미용실, 물리치료실, 진료실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장기간 미운영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가 되지 않아 재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공사 직원 봉사자들이 해피하우스에 필요한 전기온수기 및 시설보수에 필요한 자재들을 직원들의 기부금으로 직접 구입하여 이·미용실 순간온수기 설치 및 샴푸 세면대 누수배관 교체, 실내 전등 및 전기시설 누전 차단기 점검교체 등 시설보수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홍립 사장은 “한센인 정착마을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깨고 고령화되어 가는 한센인 정착마을 주민들에게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료 제공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도성마을 갤러리 개관

국내 최초 한센인 정착마을로 알려진 도성마을(전남 여수시, 대표 설학순)에 문화예술 공간이 들어섰다. 이 공간은 한센인 자립수단 양계 상장 ‘에그갤러리’로 오픈해, 다양한 예술인 집단 참여와 새로운 공동체 형성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입주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박성태 대표작가

에그갤러리(대표작가 박성태)는 지난 9월 15일(수) 마을 주민들과 일반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공간은 과거 마을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를 한센인들에게 연결해 준 교환수가 근무를 했던 곳으로 알려져 각별한 의미를 주고 있다.

‘에그갤러리’ 명칭은 여수애양병원에서 치료받은 한센인들이 1976년 마을 입주식을 갖고 정착하면서 자립 수단으로 대규모 축산 양계업을 해 온 것에 착안해 ‘Egg(계란)’으로 명칭

을 정했다. 이 갤러리는 다양한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Art Collective 도성’이라는 예술집단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그 결과물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Art Collective(예술집단)로는 인도네시아의 루앙루파가 있다. 루앙루파는 가장 권위있는 미술행사로 알려진 독일 카셀 도큐멘타의 예술감독으로 선정돼 전 세계에 주목을 받은 바 있다.



▲ 입주식 참석자들이 갤러리를 둘러보고 있다.



▲ 관람객이 갤러리를 둘러보고 있다.

언론인 출신인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박성태 대표작가는 이날 “지난 2013년 도성마을에 처음 방문했을 때 도성 교회 송찬석 목사의 권유로 10년간 마을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이 곳에 왔다”며 “예술집단 루앙루파와 같이 다양한 예술인들이 참여해 여수지역에서 처음으로 도큐멘타 행사를 하는 게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박 작가는 지난 2014년 여수진남문예회관에서 이 마을 주민들의 삶의 애환을 담은 ‘우리안의 한센인-100년만의 외출’이라는 사진 전시를 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현재 도성마을의 공간과 주민을 상대로 예술 작업을 한 작가는 박성태 대표작가를 비롯해 이찬호 조각가(예명 찰리), 민들레 벽화를 그린 손정선 작가, 천재조각가 류인의 미망인 이인혜 작가 등 4명이다.

이날 행사에는 마을 주민들 뿐 아니라, 전남도립미술관 이지호 관장, 광주시 상무소작장 문화재생 총괄기획자 김규랑 감독, 천재조각가 류인의 미망인 이인혜 작가를 비롯해 박동화 여수미협 지부장, 문화공동체 컬쳐큐브 박치호 대표, 갤러리노마드 김상현 관장, 디오션갤러리 박은경 작가, 들산자연예술학교 성창희 교장, 지역에서 예술인 후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시민, 시의원 등이 참여해 자리 를 빛냈다. 또한 여수시립합창단 유원경 소프라노는 축가로 입주를 축하했다.

한편, 도성마을은 현재 85가구 주민 200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최근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환경개선사업에 나서고 있다.

자료 제공 : 여수넷통

추석맞이 희망나눔 봉사활동 실시



지난 9월 2일(목) 현애마을(전남 나주시, 대표 이계호)에서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한국한센복지협회 광주·전남지부, (주)유명전력, (주)삼화전력, (주)대원전력, (주)금산전력, (주)그린이앤에스가 협력하여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한센 가족을 위한 훈훈한 온정을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내 한센 가족 126명을 대상으로 쌀, 라면, 화장지 등 1천2백만 원 상당의 생활필수품을 제공하였으며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 사랑봉사단의 재능기부를 통해 한센 가족 40여 가구에 약 6백만원 상당의 노후 전선 및 리모컨 LED를 설치하였다.

우리 총연합회 광주·전남지부 지재운 지부장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센 가족들에게 온정과 희망을 아낌없이 나눠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한국한센복지협회 광주·전남지부 류재선 지부장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지역에 거주하는 한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의료서비스 및 재활보장구와

생필품 지원을 매년 제공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제공 : 한국한센복지협회 광주·전남지부, 한국전기공사협회



눈에 보이는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시대에는 신속한 적응력을 보여주지만,

수십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못하는 한센병에 대한 우리의 태도.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잘못된 인식은

‘편견’이라는 ‘가시’입니다.



한국IDEA협회

인도, 필리핀 한센인 및 극빈층에 생필품 전달



▲ 생필품을 전달받은 인도IDEA 미션스쿨 학부형들



▲ 인도 비하르주 벨와지역 마을 주민들과 전달된 생필품



▲ 필리핀 산페드로 시청 직원들이 체육관에서 각 지역으로 전달될 쌀을 정리하고 있다.

한국IDEA협회(회장 정상권)는 지난 8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 필리핀의 9개 지역의 한센인과 극빈층을 지원하기 위한 생필품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인도IDEA 미션스쿨 학생 70가정을 포함한 인도 5개 지역과 필리핀의 딸라 한센마을과 산페드로시 캄캄마을을 포함한 필리핀 4개 지역, 총 780여 세대에 쌀과 부식(감자, 콩, 기름 등)을 준비해 전달했다.

지원을 받은 가정 대부분은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우기철과 태풍 침수 피해 등으로 삼중고에 시달리는 극빈층 가정을 우선으로 선정해 생필품을 전달했다.



▲ 코로나19로 인해 방문하지 못한 정상권 회장을 대신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는 필리핀 깔라오칸시 마카리오 아시스티

(사)한국한센복지협회

의왕시청 의료서비스 협약



사진 출처 : 의왕시청

한국한센복지협회가 의왕시청 직원 및 가족을 위한 의료지원을 확대한다. 한국한센복지협회는 9월 23일(목) 의왕시청에서 김상돈(왼쪽에서 세 번째) 의왕시장, 김종필(오른쪽에서 세 번째) 한국한센복지협회 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본부 부설의원은 2022년 9월 23일까지 의왕시청 직원 및 직원 직계 가족에게 예방접종 · 레이저치료 · 미용시술 등 협약 대상 비급여 진료비 15%~20%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역사속 인물

청춘과 인생의 절반을 한센인에게 바친 로버트 윌슨 선교사



로버트 M. 윌슨(Robert M. Wilson, 1880년~1963년) 선교사는 미국 아칸사스주 콜럼버스에서 태어나서 의료선교를 위해 한국에 왔다. 워싱턴 의대를 졸업하고 1908년 남장로교 선교사로 한국에 와 광주제중원장으로 첫 사역을 시작했다. 1909년 영산포 한센병 여인을 처음으로 치료, 10여명의 한센병 환자를 모아 수용하면서 최초의 한센병 병원인 광주나병원(현 여수애양원)을 설립했다. 낙천적 성격으로 사냥을 통해 스트레스 풀고 40년간 1만 명 넘는 한센인을 돌봤다. 윌슨은 1948년 미국으로 영구 귀국했으며, 그의 청춘과 인생의 절반을 한국 근대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시절인 1909년부터 1948년(일본 강점기)까지 한국에 머물며 의료 선교와 한센 선교, 교육을 위해서 공헌하였다.

영산포의 한센병 여인 처음 돌본 윌슨

1911년에 전라도로 와서 1942년까지 목포와 광주에서 일했던 남대리(Leroy Tate Newland, 1885~1969) 선교사는 그의 일기 속에서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한센인의 처지를 나라 잃고 병든 민족의 아픔에 비유하며 아래와 같이 글로 적었다.

“한센병으로 정신이 나간 한센병 환자가 있었다. 그날 오후 내내 바깥에서 내게 말을 걸어 방해를 했다. 모임이 끝나고 바깥으로 나가보니 그가 강둑 끝에서 나침반의 동서 남북 방향으로 절을 하면서 문드러진 팔을 내밀면서 ‘주여, 저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저를 살려주옵소서’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는 하루 종일 이렇게 애처롭게 외치고 심지어 밤에도 뛰쳐 나가서 적막함을 뚫고 자신을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마지막 죽는 날까지 이렇게 외쳤다. 얼마 후 그는 자신이 소망하던 생명을 얻었다. 그 장면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아직도 그의 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나에게는 한국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그와 함께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라 잃고 지도자가 없는 한국의 모습, 그는 동서남북을 보면서 살려달라고 했지만 삶을 찾지 못했고, 오히려 죽음을 찾았다. 그리고 이제 그는 죄로 저주받은 손을 내밀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저를 살려 주소서, 저를 살려 주소서’라고 외친다. 여러분은 한국의 한센병 환자와 한국의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 교회와 교육 사업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들은 병자를 돌보고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교회가 아니라 나라가 책임져야 한다고 여겼다. 그러기에 세브란스(Louis H. Severance)가 조선의 의술을 위해 광주제중원에 당시로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금화 1만 달러를 희사했을 때, 대부분의 목사는 “이 돈을 모두 병원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의미없는 일이므로 이 금액에서 반을 떼어 교회 사업에, 나머지 절반을 병원 사업에 사용하자”며 떼를 썼다. 이 돈을 희사한 세브란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그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목사, 선교사들의 시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던 차에 1909년 4월, 목포에서 일하던 닉터 포사이드(W. H. Forsythe)가 여행 중에 영산포에서 만난 한센병 여인을 자신의 말에 태우고 광주로 데려와 환자가 죽을 때까지 돌봐주었던 사건은 선교사들의 고정관념을 밀바닥부터 뒤집는 사건이었다. 한센병 여인을 위한 집은 어디에도 없었지만, 포사이드와 광주제중원의 원장인 윌슨의 호의로 그녀는 결국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낡은 온돌 위에서 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는데 그녀의 고통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들 사이에 그녀와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이 넘치게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센병 여인이 그리스도를 믿는지 아니면 종교가 무엇인지를 따져 묻지 않았다. 그야말로 종교적 한계를 넘어선 사랑 그 자체였다. 그녀는 자신을 끝까지 돌보아준 포사이드와 선교사들에게 “내 동족 같았으면 당신들처럼 이런 친절을 베풀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라며 감격해 했다.

그녀가 죽자 광주 지방 선교사들은 기금을 모아 그 돈으로 방 세 개짜리 오두막집을 세웠고, 이곳에 한센병 환자들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최흉종 목사의 부지

기부로 광주 봉선동에 한센인을 위한 시설이 세워졌다 는 입소문이 온 나라에 돌자, 매일같이 환자들이 몰려들었다. 이렇게 되자 선교사들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인도의 한센병협회와 스코틀랜드의 한센병환자협회 극동지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들의 관대한 후원으로 윌슨은 한센인을 위한 근사하고 편안한 숙소와 병원을 1913년에 세울 수 있었다. 이것이 한국 최초의 한센병 병원인 광주나병원의 시작이었다(광주나병원은 1936년 명칭을 여수애양원으로 바꿈). 이후 환자들이 병원에 몰리기 시작했다. 그러

나 그 숫자가 너무 많아 여성 환자들은 거의 아무것도 제공 받지 못했다. 정식으로 한센병 환자마을 1호가 문을 연 것은 1913년이었다. 초기의 지금 대부분은 런던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선교회’에서 충당했다.



▲ 1920년대의 로버트 윌슨



▲ 1909년 무렵 세워진 광주 봉선동 시절의 한센인 마을. 포사이드 선교사 밑에서 일하던 최흉종 목사가 기증한 부지에 자리 잡았다.

원순의 편지

저는 한센병 환자 604명이 수감된 한센병 환자마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길가에서 한센병 환자가 양배추 잎으로 상처를 싸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더러운 신문지에 침을 뱉어서 자기 상처에 드레싱 하듯 붙여 놓더군요. 세상에 누더기 옷감이 넘쳐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09년, 불쌍한 여성 한센병 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저희를 찾아왔지만 당시에는 한센병 환자를 위한 방이 없어 구들장 위에 환자를 눕히고 몇 주 후 숨을 거둘 때까지 먹이고 보살펴주었습니다. 이 환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환자촌은 600명을 수용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이곳에 온 사람은 그나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 환자 중에서 300명 정도는 수술 드레싱을 받아야 하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싶어 가슴이 철렁하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환자들의 상처에 드레싱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천이 많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낡아서 못 쓸 옷감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낡은 옷감이 훌륭한 드레싱 재료로 둔갑합니다. 저희에게는 이 천들을 소독할 수 있는 증기 소독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주실 일은 낡은 천을 모아서 1/파운드 이하의 소포로 묶어 ‘한국 광주나병원’ 앞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대풍자유(大風子油 · 대풍자나무 종자의 껍질을 벗기고 압착해 얇은 황색 지방유를 대풍자유라고 하는데, 대풍자유는 동아시아에서 한센병의 치료에 사용) 치료 효과는 여전히 좋습니다. 허약하고 처참한 상태로 우리 환자마을에 도착했던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면 곧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합니다. 가게에서 일하며, 운동하는 시간과 노는 시

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운동회를 하는 날이면, 새로 들어온 환자들은 거의 참석하지 않고, 몇 달 동안 치료를 받아온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센병 환자들 중에 펠라그라(Pellagra · 비타민 결핍증)를 앓는 경우가 몇몇 있는데, 이 문제는 식단을 조절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온갖 꼼꼼한 사진들 중에서 가장 꼼꼼한 것은 펠라그라병을 앓는 한센병 환자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 꼼꼼해서 묘사를 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우리같이 건강한 사람들은 매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 땅 / 평방인치당 5000만 마리 세균이 들킬대는 환경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에 걸리지 않고 멀쩡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는 갈라진 발을 실과 바늘로 꿰매고 있는 환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마치 낡은 신발을 수선하듯 자기 발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덕분에 틈이 더 벌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열흘에 한 번 정도는 다시 바느질을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실이 닳아서 뜯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센병 환자들에게는 이런게 정말 흔한 일입니다. 낡은 신발을 보내주면 한센병 환자들이 발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문에서 뉴욕 시장이 조총한 저녁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그 비용이 2만5000달러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비용이면 700명의 한센 환자들의 1년 식사비와 치료비, 기타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습니다. 또 이 돈이면 한센 환자들이 스스로 경작해 식량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농장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 편지는 월슨이 미국의 후원자들에게 한국의 한센병 환자들을 소개하면서 후원을 요청할 때 사용한 보고다. 낡은 신발과 천 조각은 그야말로 한센병 환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던 셈이다. 병을 앓는 것도 서러운데 마땅한 치료 방법도,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환자의 몸을 싸매줄 거즈(Gauze · 무명베) 한 조각도 없어 미국의 후원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광주 봉선동에 한센병 환자 시설이 처음으로 들어선 1909년 이래 그 수요가 늘어나자 새로운 골칫덩이가 생겨났다. 한센병은 점차 더 번져나가고, 특히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지방이 극심했다. 따뜻한 기후 탓이었다. 그런 이유로 기독교 선교기관들이 나라가 못하는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일까지 도맡아 하게 되었다.

한국에는 기독교 선교회가 운영하는 한센인 마을이 세 곳에 나뉘어 있었다. 호주 장로교가 부산 감만동에 상애원이라는 이름으로 500명을 수용했고, 대구에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에서 450명,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가 광주 봉선동에 운영했던 애양원이 1926년 순천으로 장소 이전을 마쳐 800명을 수용했다.

일제 총독부가 운영하는 소록도 한센인 마을에는 250명이 입소해 있었다. 남장로교는 순천에 215에이커(약 31만 평)를 사들여 재활마을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광주에서 순천으로 이사 올 때 일본 총독부가 이주비용 가운데 1만2500달러를 부담했다고 한다.



▲ 월슨이 설립한 광주나병원의 한센병 환자들

한센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결혼식

한센병 환자 수용소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탄원하는 무리만큼 열성적이면서도 비참한 사람들을 보는 경우가 흔치 않을 것이다. 한센인들의 여수애양원 입소 요청은 친절한 사람들이 이들을 위해 약간의 후원금만 내주면 받아들여졌다.

서울에서 온 어떤 부부가 이 한센병 환자 정착마을을 방문했는데, 이들이 들어서자마자 불쌍한 한센병 환자 다섯 명이 “살려주세요”라며 달려들었다. 그러자 남자가 월슨 박사에게 “이들을 받아주시는 데 드는 비용을 제가 대겠습니다”라고 했다. 한 시간 후쯤 이들이 떠나려 할 때 또 다른 한센병 환자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그 부인이 “제가 부담할 테니, 이 네 사람을 받아달라”고 했다.

이 부부는 한센인 마을을 떠나기 전까지 한센병 환자 총 15명의 비용을 부담했고, 이들이 들어서자 이미 입촌해 있던 한센병 환자들이 “지옥에서 나와 천국으로 들어 오시게나”하면서 반겨주었다. 한센병 환자들은 때를 지어 몰려와 입소를 기다린다. 18명 또는 20명씩 무리를 지어 소나무 아래에서 밤을 지내며 입소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 때로는 문밖에서 일주일을 기다리다 결국은 입소하지 못한 채 수백 리 길을 걸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한센인 마을의 운영비는 대개 본인이 3분의 1을 부담하고 3분의 1은 일본 정부, 나머지 3분의 1은 뉴욕의 한센병환자협회와 스코틀랜드의 한센병환자협회가 후원하는 비용으로 충당했다.

한센병 환자들은 몸도 불편했지만 대개는 가난했다. 그러므로 본인이 내야 할 부담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그런 이유로 선교부는 약 300에이커(36만7252 평)를 더 사들여 이들에게 자활 농장을 운영하도록 했다. 목공 기술을 가르쳤고, 각종 농산물과 양계 사업을 하게 했다. 이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이러한



▲ 여수애양원에서 한센인들이 합동결혼식을 올리고 있다. 선교사들은 한센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과 결혼해 가정을 이루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다.

재활 기술을 통해 먹고 살아갈 경제적 수단을 확보하는 일과 같은 한센인들끼리 가정을 이루어 결혼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합동결혼식은 대개 일 년에 서너 번씩 이뤄졌다. 이들의 결혼을 통해 생긴 자식들이 부모로부터의 감염이 우려돼 태어나자마자 격리되는 아픔도 있었다. 대개 이런 아이들은 대구 지역의 북장로교 선교사 플레처가 운영하던 미감아(未感兒 · 한센병에 감염되지 않은 아이) 시설로 보내졌다. 사랑이 넓은 눈물의 자식인 셈이다.

과거 많은 사람이 한센병은 유전병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증명되고 많은 사람이 깨닫게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흘러야 했다. 특히 이 병에 걸리는 동물이 하나도 없는 탓에, 인위적으로 배양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치료법의 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었다.

한센병은 전염병이라고도 볼 수 없었다. 전염병에 매우 취약한 어린아이들도 한센병 환자와 같이 살면서도 감염되는 아이들은 실제 40%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결핵균과 매우 비슷하며, 병 자체도 비슷하고 치료법도 결핵과 비슷한 측면이 있던 한센병이 1868년 한센에 의해 발견된 이래 근 50년이 지나서야 알려지게 된 셈이다. 1900년대, 한국의 한센병 환자는 1000명에 한 명꼴로, 한센병 환자와 접촉하는 사람들은 환자의 얼굴, 그들의 손이나 발을 보고서야 한센병 환자임을 판별할 수 있었다.

사냥으로 스트레스를 풀 월수

월수는 광주제중원에서 근무 시 과도한 병원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사냥으로 풀기도 했다. 그의 사냥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편집 증세까지 보였다. 한번 사냥을 나가면 인근의 화순 화학산과 지리산, 무등산으로 나가 일주일씩 사냥하는게 보통이었다.



▲ 월슨(오른쪽에서 두번째)이 멧돼지 사냥을 끝낸 모습

머나먼 이국에서, 그것도 한센인들과 살점 튀기는 수술과 진료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그의 남모르는 고통과 헌신이 있었기에, 그리고 일과 함께 사냥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며 살아온 낙천적인 생관이 있었기에 1908년에 한국으로 와서 1948년까지 근무가 가능했는지도 모른다. 월슨은 한국에서 사냥의 재미를 담은 '한국에서의 사냥의 즐거움'이라는 수필을 남기기도 했다.

소위 일벌레로 알려진 서서평 선교사나 브랜드 의사처럼 성실하게 일하며 사역 의외에는 아무것에도 한눈

팔지 않았던 이들은 비교적 단명할 수밖에 없었다. 존경을 얻고 감동을 주었으나 본인은 단명했다. 월슨의 경우는 반대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사냥 편집증은 우리 시각으로 비평하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많은 시간을 우리 곁에서 남들이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한센인들의 곁을 지킬 수 있는 요인도 됐다.

1945년 광복 이후 미 군정청은 그를 소록도, 애양원 등 한센인 시설을 총괄하는 군정 자문관에 임명했고, 그의 아들 존 월슨도 아버지의 사역을 이어 한국 땅에서 젊음을 불살랐다. 1948년 귀국 후 미국에서 신학공부로 목사 안수를 받기도 했던 월슨은 1963년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서 83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여수애양원 광장에는 월슨 좌상이, 광주 호남신학대학교 내에는 월슨 사택을 통해 그의 자취와 업적을 느낄 수 있다. 월슨 사택은 월슨이 광주에 거주할 당시 사용한 것으로 현존 양식 주택으로는 가장 오래된 건물로 현재 광주시 기념물 15호로 지정돼 있다.



▲ 여수애양원 광장의 로버트 월슨 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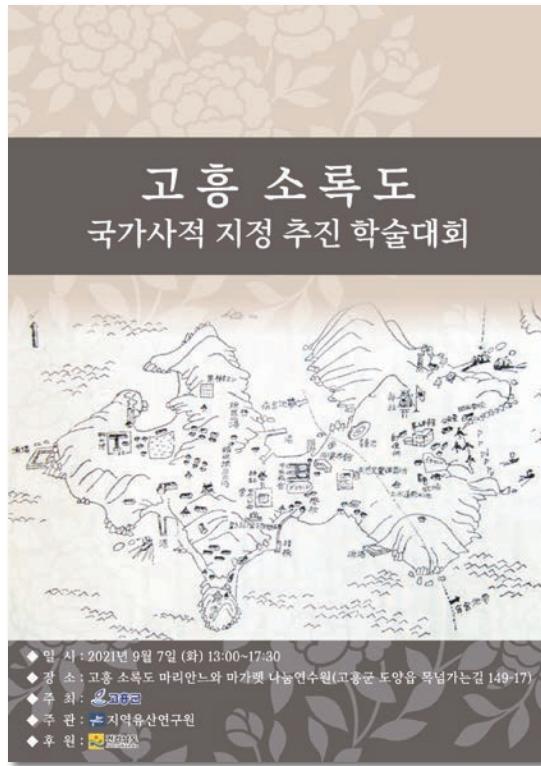


▲ 로버트 월슨 사택

자료 제공 : <살아있는 성자 포사이드> 저자 양국주

한센 공감

소통하는한센



지난 9월 7일(화) 마리안느와 마가렛 나눔
연수원에서 소록도 근대역사 유적의 사적 지
정을 위한 학술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고흥소록도 국가사적 지정 추진 학술대회

소통하는한센

소록도 국가사적 지정 추진 학술대회 개최

이번 학술대회는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현장 참가자는 문화재청, 관계전문가, 소록도주민, 고흥군민 등 30명으로 제한하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 첫 발제자로 나선 김재형 교수는 국립소록도병원은 역사가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복잡한 성격으로 인하여 한국근대사에 있어서 매우 독특하고 의미 있는 위치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또한, 국립소록도병원 역시 그 역사성이나 독특성, 그리고 보존성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는 공간으로 이곳을 보존하고 잘 가꾸어 나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백미영 소록도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소록도박물관은 소장자료를 크게 박물자료와 도서자료가 있고, 그 안에 담긴 가치와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꾸준히 생산되는 자료도 있지만 대부분 새로 수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왕 수집된 자료들에 집중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 발제자 이옥희 남도학연구소 이사는 소록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센인 집단거주지로서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어 여러 건축물 또는 유품 등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문화재 지정이 유형적인 자원에 한정되어 있음을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였다. 더불어, 소록도의 모든 곳에는 한센인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으며, 한센인들의 삶의 내력이 쌓여 있으므로 그 의미를 지켜갈 수 있는 방향으로 문화재 지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하였다. 또한, 세대를 거쳐 전승되는 생활문화와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 자연 및 역사와 상호 작용을 하면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유산이므로, 소록도 한센인의 살아온 삶을 의미화 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고 하였다.

마지막 발제자 강동진 교수는 소록도는 다층적 기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지난 100년 동안의 역사적, 공간적, 사회적 변화상을 분석하여, 소록도의 변천과정 속

에서 지켜야 할 348개소의 보전자산과 52개소의 필수 보전자산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한센인 삶터로서의 공간과 장소, 한센인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흔적과 풍경 등과 관련된 자산으로, 향후 지속 가능한 소록도를 위한 방향 설정의 기초 자료이자, 한센인 소멸 후 소록도 보전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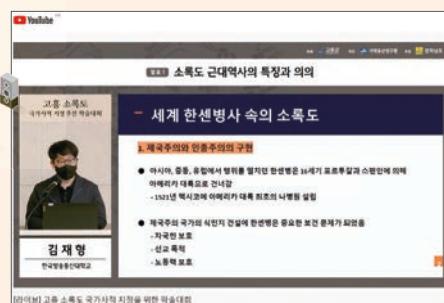
고흥군은 이번 학술대회가 고흥 소록도 사적 지정 가치를 확인하는 자리로 여러 해 동안 종합적인 조사와 학술연구 등을 통해 자료를 축적하고 지정 가치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학술대회를 지켜본 소록도 주민은 “한센인이란 용어에 대한 정리와 고민이 필요하고, 제2의 고향으로 알고, 100여 년 동안 한 맷한 삶을 살면서 지금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면서 “우리의 애환이 서려 있는 이곳 소록도가 우리 주민이 주체가 되어 역사적인 사적지가 되어 영구히 보존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학술대회는 유튜브에서 <고흥 소록도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검색 또는 <지역유산연구원> 유튜브 채널에 방문하면 시청이 가능하다.

자료 제공 : 고흥군

<고흥 소록도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 <지역유산연구원>



이춘상 6·20의거 기념조형물 기초공사 완료

소록도 중앙공원 이춘상 6·20의거 기념조형물 건립 장소의 기초공사가 완료되었다. 가로 1900mm, 세로 1400mm, 깊이 600mm에 철근과 철망을 깔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이었다. 많은 나무들 때문에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접근이 여의치 않아 작은 덤프트럭에 콘크리트를 실어와 포크레인으로 퍼서 옮기는 등 조금은 번거로운 작업이었지만, 기존 공원과 친화적으로 기초공사를 마무리하였다. 기념조형물 마지막 설치 작업은 10월 27일(수) 오전 9시에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아직 국내에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춘상은 소록도갱생원(현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한센인으로 생활하던 중 일본인 스오 마사스에(周防正季) 원장을 1942년 6월 20일 칼로 처단한 인물이다. 스오 원장은 절대 약자인 한국인 한센인들에게 학정과 인권탄압을 일삼아 술한 희생자를 야기했다. 또한 한센인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걷어 1940년 8월 20일 9.6m 높이로 자신의 동상을 세운 뒤 매월 20일을 ‘보은감사일’로 정해 소록도 전체 한센인들을 동상 앞에 모아 놓고 참배를 시켰다. 이춘상은 1942년 6월 20일 오전 8시 5분경 스오 원장이 보은 감사일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에게 달려들어 “너는 한센인들에게 무리한 짓을 했다”라고 추상같이 외친 후 의거를 감행했고 이듬해 2월 19일 대구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돼 순국했다.



자료 제공 : 이춘상기념사업회

당신의 작은
사랑과 관심은 한센인들에게
큰 기쁨과 희망입니다.

(사)한국한센총연합회는 한센인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한센인의 사회적 수용을 촉구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소중하고 확실한 행동수칙

- 거리두기 확 띄워요!
- 어디서나 확 써줘요!
- 비누로 확 씻어요!
- 옷소매로 확 막아요!
- 밀폐·밀집·밀접 확 피해요!
- 감염병 궁금할 때 확 전화해요!



질병관리청

영호 배움행복마을교육 소감문



▲ 송은주(아원미래교육연구소 대표)

“아무 것도 안해줘도 좋아! 이렇게 웃어본지가 내 평생 처음인 것 같고요, 이렇게 좋은 걸 무슨 복으로 우리 마을에서 할까싶네”

전남 영암군 도포면 영호마을.

영호마을로 가는 도로는 영산강을 낀 고즈넉한 시골길이다. 주민분들을 만나려 가는 길은 언제나 가슴이 설레고 미소가 지어지게 된다.

마을 입구에 나오셔서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시는 마을 대표님과 마스크에 가려진 얼굴이지만 미소를 지으며 반겨주시는 주민분들의 얼굴은 잊혀지지 않는다. 늘 고맙다, 감사하다,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민들을 뵈면 겸허해지기까지 한다.

교육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주민들에게 삶의 활력소를 드리고 싶었다.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이 함께 웃고 서로 협력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보드게임 시간을 가장 즐거워 하셨던 교육생들.

오늘은 어떤 재미난 교육을 해주나 싶어 기대에 가득 찬 천진난만한 얼굴들... 다음 시간에는 어떤 것을 할지 너무나 기다려진다고 말씀하시면 강사로서는 최고의 칭찬과 격려가 아닐까 싶다.

보드게임 마지막 시간... 이제까지 배웠던 보드게임으로 팀별 대항전을 치루는 시간, 서로 자기 팀을 응원하며 교육장이 흥분의 도가니였다.

간단한 선물을 준비하고 시상식도 준비하며 시작된 게임.

우리 팀이 우승해야겠다며 다짐하던 교육생들은 게임을 통해 허리가 아프도록 웃고, 너무 웃어서 눈물이 난다고 하시고, 생전 처음 이렇게 웃어본다고 하시고.

마을 노인회장님이신 박옥자 교육생은

“아무 것도 안해줘도 좋아! 이렇게 웃어본지가 내 평생 처음인 것 같고요, 이렇게 좋은 걸 무슨 복으로 우리 마을에서 할까싶네”

하시며 눈물을 훔치시며 참석한 교육생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라며 좋아하셨다.

동영상 속의 교육생, 강사진, 촬영하는 나도 모두가 너 무나 행복해 하는 모습과 다시 영상을 봐도 그때의 기억으로 마냥 웃게 된다.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이 아닌거 알제! 교육이 끝났다고 인연 끊지 말고 자주 놀러오시오 선장님, 우리 집에서 차 한잔 대접할라요”

진심을 다하면 통한다고 했던가.

주민분들의 특성에 맞춘 강사진의 정성스런 교육준비와 진행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변해가는 주민분들을 뵈면서 강사와 교육생보다는 점점 한 식구가 되어가는 기분이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함께 등을 쓰다듬어주고, 함께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며 수업이 끝나고 돌아가는 차량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마을 입

구에서 손을 흔들어 주시는 주민분들.

그 어떤 마을보다도 정겹고 사랑이 넘치는 사랑하는 영호마을.

교육이 끝나고 10일이 지난 오늘, 나는 우리의 인연이 끝이 아니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영호마을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출발하려 한다.



최선(最善)을 다하는 삶

김 종 윤(익산마을)

작은 마을에 스님 한 분이 살고 있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어느 누구도 스님의 말문을 막하게 하는 사람이 없는 소문난 스님이었다.

어느 날 똑똑한 소년이 작은 새 한 마리를 손에 쥐고 스님에게 가서 물었다. “스님 이 새가 죽은 건가요? 아니면 살아 있는 건가요?” 질문을 하여 놓고 소년은 잠깐 생각했다. ‘스님께서 살았다고 하면 죽이고 죽었다고 하면 날려 보내야지. 이렇게 하면 내가 스님을 이기는 거야.’ 소년의 말을 듣고 있던 스님은 웃으면서 말을 하였다. “얘야, 그 새의 생사(生死)는 네 손에 달렸지 내 입에 달린 게 아니란다.” 그러자 소년은 깜짝 놀라며 새를 날려 보내면서 말을 했다. “스님은 어떻게 이토록 지혜로우신가요?” 그러자 스님이 대답하였다. “예전에 나는 정말 명청한 아이였단다. 그러나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생각하다 보니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더구나. 너는 나보다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러자 소년은 슬픈 기색을 보이며 말을 하였다. “스님, 어제 어머니께서 점을 보셨는데, 제 운명은 엉망이라고 했습니다.” 스님께서 잠시 침묵하시더니 소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얘야, 네 손금을 보여주라. 이것은 감정선, 이것은 사업선, 이것은 생명선. 자, 이제 주먹을 쥐어보아라.” 소년은 주먹을 꼭 쥐고 스님을 바라보았다. “얘야, 네 감정선, 사업선, 생명선이 어디 있지?” 소년은 자신의 손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대답하였다. “바로 제 손 안에 있지요.” 그러자 스님은 “그렇지, 바로 네 운명은 네 손안에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입에 달린 것이 아니란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네 운명을 포기하지 말거라.”

이렇게 전해 오는 스님의 일화가 말하듯 현재 사회는 세상의 적지 않은 이들이 적은 지식에 자만하고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작은 꾀로 자신을 속이고 해를 끼치기도 한다. 또한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개척하기 보다는 타인에게 자신의 업을 탓하고 도피하며 아닌 듯 위로 받으려고 한다. 이러한 모순에 해당은 없을까? 스님은 너무나 명쾌했다. 스님께서 그 소년에게

‘너의 손을 꼭 쥐어보아라.’ 하는 뜻은 모든 것은 너의 손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를 만들어 포기하지 말라는 간단하고 현명한 답이었다.

꿈을 꾸며 노력하고 그 일을 사랑한다면 운명은 바뀌지 않을까? 오늘 우리의 손을 꼭 쥐어보자. 그리고 다시금 최선을 다해 한번 더 시도해 보자. 삶의 정점(頂點)은 최고가 아니고 최선이다.

세종대왕 때 청렴결백한 정치가인 맹사성은 늘 허술한 차림으로 민간의 사정을 살피고 다녔다. 그의 외모가 워낙 촌부 같아서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루는 성묘 차 온양을 다녀오는 길에 비를 만났다. 용인의 어느 주막에 들어갔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호화로운 선비의 행차가 있어서 맹사성은 방을 얻지 못하고 한 모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비를 피하고 있었다. 지루하게 앉아 있을 때 선비가 함께 바둑이나 두자고 해서 대청마루에 앉았다. 서로가 초면이므로 상대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때 맹사성이 먼저 제의를 하였다. “우리 서로 묻는 말에 마지막에 ‘공’을 부치고 대답 끝에는 ‘당’을 붙이기로 합시다.” “좋습니다.” 맹사성이 먼저 물었다. “어디로 가는공?” “서울로 간당.” “무엇하러 가는공?” “벼슬하러 간당.” “무슨 벼슬인공?” “녹사취재 벼슬이당.” “내가 힘써 줄공?” “자네 같은 촌부는 택도 없는 소리당.” 이렇게 환담을 하며 바둑을 둔 두 사람은 헤어졌다. 그 후 선비는 서울로 올라와 녹사취재 벼슬을 얻어 3정승 6조판서가 모인 정청으로 신고 차 방문을 했다. 그 앞에서 감히 얼굴도 못 들며 쪄쩔매고 있는 선비를 본 맹사성은 이렇게 말을 건넸다. “어찌된 일인공?” 낯익은 목소리에 선비가 얼굴을 들고 보니 그 촌부가 금관조복의 좌의정 맹사성이었다. 촌부인줄로만 알고 무례히 대했던 그 선비는 어쩔 줄을 몰라서 “죽을지어당!” 하고 대답을 했다. 그 후로 이 선비는 맹사성의 지도로 청렴한 관리가 되었다고 한다. 우리의 삶을 보람 있게는 못살아도 부끄럽게는 살지 말자.

늙음의 세월

박 우 택 서울·중부지부장

꿈 많았던 어린 시절도

미워하고 사랑했던 젊은 날의 열정도

한 많은 세월 속에 잠들고

그리움으로 남아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불드네

피할 길 없는 늙음의 세월

건강, 친구, 돈은 필수라는데

한 세상 비우고 버리며 살라하네

작품 해설 필자(박우택 지부장)는 젊은 시절 꿈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이에 늙어갔고, 미완성의 젊은 날의 꿈들은 가슴 속에 묻혀 추억이 되어버린 아쉬움을 작품에 내포시켰다.

풍요로운 계절

신재문 영락마을 대표

땀 흘려 가꾼 곡식
잘 자라나
오곡이 알차게 무르익었네

이른비, 늦은비 내릴 적마다
무성하게 자라나
이제는 알곡으로 변모되었네

심은 데로 거두는 진리따라
마음부터 바빠지는 농부의 마음
거두어 드리는 손길 빨라졌구나

산마다 곱게 물든 아름다운 단풍
신부가 신랑위해 단장한 듯
너무나 아름다워 곱기도 하다

자연에서 얻어진 아름다움을
인생의 막다른 황혼길에서
아름답고 즐겁게 살고 싶어라

작품 해설 필자(신재문 대표)는 온갖 곡식과 과일이 익어 가는 가을의 맑고 풍성함에 대한 감상과 어 생을 자연과 어울리며 즐겁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시에 내포시켰다.

올바른 약 복용은 나의 건강을 지킵니다.



올바른 약



올바른 처방



올바른 용량



올바른 시간



올바른 복용 기간



삶을 희망으로 살아가는 이지선 한동대학교 교수



2000년 7월 30일,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의 차로 귀가하던 스물세 살 이지선 교수는 음주운전자가 낸 7중 추돌사고로 전신 55퍼센트에 3도의 중화상을 입는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7개월간의 입원, 30번이 넘는 고통스런 수술과 재활치료를 이겨낸 그는 비록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지만, 사고 날짜를 그의 두 번째 생일이라 여기며 희망을 잃지 않으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사고 후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그는 여전히 담담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2004년 지인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재활상담과 사회복지 석사학위, 그리고 2010년에는 UCLA 사회복지 박사과정에 합격하고 현재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임용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는 전문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고 그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희망을 나누기 위해 분주히 뛰어다니고 있다.

‘지선아 사랑해’로 온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한 이지선 교수의 스토리는 지금까지도 국민들의 눈시울을 적시는 기억으로 남아 있다. 본지는 모든 난관을 끗끼이 이겨내고 우리 사회 궁정의 아이템이 된 이지선 교수의 감동 스토리를 재조명해보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더불어 사는 사회, 공감하는 사회가 되는데 큰 보람을 느낀다는 이지선 교수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12년간의 미국 유학 끝에 대학 강단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네요. 긴 유학생활과 교수라는 직업, 사회복지학 선택, 남다른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A

2004년에 지인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길에 올라 2008년 보스턴대 재활상담학 석사, 2010년 컬럼비아대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받았어요. 지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덜 생소 할 수 있을 거 같아 자연스럽게 미국을 선택했고 정착하는데도 수월했었던 거 같아요. 저는 타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닌 그리고 의도치 않은 사고를 당해 불행을 겪었어요. 그 불

행 속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데 타인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주변의 도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이 과정에서 연대의 힘, 사회복지의 힘을 알게 됐고 저도 타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보람된 일을 해보고 싶어 사회복지학을 선택하게 됐어요. 사실 인생이라는 것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열심히 산다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보장도 없어요. 그리고 불행한 일을 겪었을 때 자신만의 노력으로는 극복이 어렵고요. 저는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할 때까지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 미국 UCLA(캘리포니아주립대학) 졸업식에서 부모님과 함께한 이지선 교수(개인 소장)



▲ 한동대학교에서 환하게 웃음 짓고 있는 이지선 교수
(권혁재 사진전문 기자 제공)

Q 교수님께서 다양한 재단에서도 보람된 일을 하고 계십니다.

A 제가 사실 여러 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창립자의 뜻이 너무 좋아 푸르메재단과 함께 일을 하게 됐어요.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돋는 재단으로,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이뤄냈고 최근에는 일자리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 이 자립의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푸르메 소셜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상 경험자의 건강한 삶, 행복한 삶, 가치 있는 변화를 위해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회복을 지원하는 한림화상재단 홍보대사로도 활동하면서 강의 등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아동복지실천세움에서 수용자 자녀와 가족의 사회 참여 확대, 인권옹호 등 그들이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는데, 요즘은 이 일에 꽂 빠져서 살고 있어요. (웃음)

Q 다양한 재단 홍보대사로 활동하시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는데, 이런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요?

A 제가 어려울 때 받았던 ‘따뜻한 도움의 기억’ 때문인 거 같아요. 오랜 기간 동안 저를 위해 응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계기이자 힘이었어요. 제가 힘든 상황, 그 자리에 앉아봤던 사람으로서, 희망의 힘을 알기에 기꺼이 그 희망을 타인에게 주고 싶었어요. 꼭 화상 피해자들이 아니더라도 장애인들, 수감자 자녀들, 희망의 끈을 놓기 쉬운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었어요.



▲ 이지선 교수의 강의 모습 (개인 소장)

Q 수감자들의 자녀들을 대하실 때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으실 거 같아요.

A 쉽지는 않지만 부모의 죄는 자녀의 삶과 연관이 없다는 것 자체를 머리에서 지우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아이는 그냥 아이다'라고 생각하고 진심을 다해 아이를 대하는 것이 필요해요. '부모 중 한명이 없이 자라는 양육 환경에 놓인 아이의 처지를 고려하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아이들이 저를 만나는 시간만큼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있었으면 했을 법한 일들을 제가 해주고 있어요. '서울 명동 가봤어', '놀이공원 가봤어'라고 천진난만한 자랑을 할 수 있도록. (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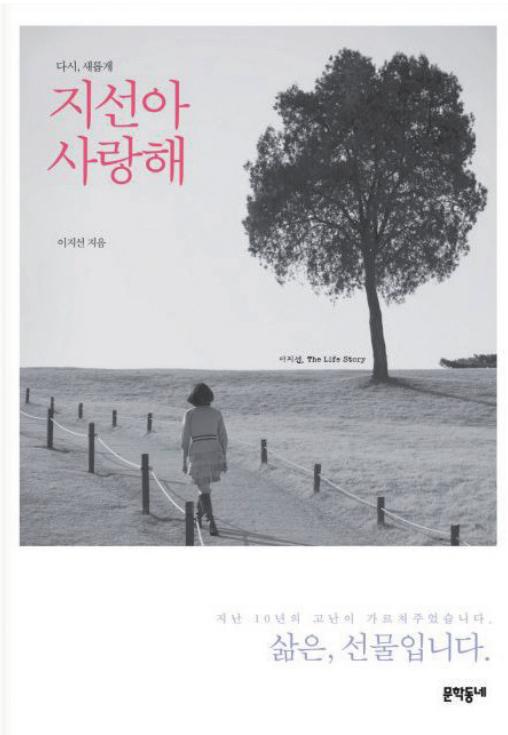
Q 교수님께서 생일이 2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일이 왜 2개이신지요?

A 제가 사고를 만났던 날을 생일이라고 여기며 살게 됐어요. 저는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사고를 만났다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스스로 삶을 선택하면서 살 수는 없고 제게 주어진 운명이라 생각해요. 저는 이 사고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Q 교수님의 취미는 무엇인지요?

A 사실 여러 가지 취미를 도전했는데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웃음) 저는 음식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과 나눠 먹는 것을 좋아해요. 제가 조카가 3명이에요. 토요일에 부모님, 조카들 모여서 음식을 해먹는데, 그게 가장 좋아하는 취미인거 같아요. 저희 집은 모두 고기파예요. 고기와 간간히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채소를 곁들어서 먹어요.

Q 존경하는 분이 계신지요?



▲ 지난 2003년 이자선 교수는 <지선아 사랑해>을 출간하며 희망과 감사의 메시지를 많은 이들에게 전했다.

A 일본에서 1년간 치료를 했어요. 일본에서 만난 목사님을 가장 존경해요. 제가 가질 수 없는 모습을 가지셔서 제가 존경해요. (웃음)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투철하세요. 한 번의 흐트러짐 없이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히 갖고 계신 분이세요. 인간이라면 자신이 무언가를 할 때 여기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는데, 그 분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목사님의 모습은 완전히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평생 존경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요.

Q 한센인(병) 편견이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데요, 이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작지만 보람된 일은 무엇일까요?

A 저는 사고 후 외모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오해를 극복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태도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었고, 박사 논문도 이 주제로 쓰기도 했어요. 저는 스스로 많이 노출을 시키고 친구 관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나 스스로가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자신을 타인에게 노출시키고 익숙해지게 만들어야 해요. 우리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계속 상대에게 인식시켜 줘야 해요. 나도 기쁠 수 있고 화도 낼 수 있는 동일한 욕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알려줘야 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한센인의 홍보대사이다”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한센인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겨 주는 것이 중요해요.

Q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면서 가장 보람된 적이 언제신지요?

A 길에서도 우연히 만나거나 편지로도 많은 분들이 인생의 끝을 내고 싶은 순간이 왔을 때 그러지 않고 힘을 내서 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주실 때 가장 보람이 돼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저 스스로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산 게 다행이구나. 내가 했던 행동이 누구에게 용기를 줬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사하죠. (웃음)

Q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인권이란 무엇인지요?

A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 말처럼 모든 생명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소중하듯이 남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권이라 생각해요. 어리든 나이가 많은 남자든 여자든 남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인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려야 할 권리는 마땅히 남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Q 교수님의 인생 신조는 무엇인지요?

A 끝이 아닐 것이라는 믿음. 해피엔딩이 있을 것이다. (웃음) 사고가 발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 해피엔딩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해피엔딩은 하나님만이 만들 것이며, 걱정은 하나님 몫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주어진 하루를 값지게 살고자 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주어진 하루를 잘 살아낼 작정이에요.

Q 한센인 어르신들께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인생을 살면서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셨지만, 그게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잘 살아오신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행 속에는 좋은 일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삶을 돌아보시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얻게 된 작지만 좋은 것, 그것을 생각하시는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착마을 풍경

정착마을을 걷다, 금성마을

정부시책에 의해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장관의 건강증을 받아 1962년 12월 8일 경북 의성군 금성면 도경4길 151에 정착하여 마을을 형성하게 되었다.



조용한 산자락 아래에 나무들로 둘러싸인 금성마을 교회...

나무는 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한 자리에서 꽂꽂이 자라나며 굳은 바람이 불어도 쉽게 꺾이지 않는다...

그런 나무와 꼭 닮은 사람들이 머무는 마을...

한센인에게 사랑과 희망을



한국한센총연합회의 후원자가 되실 분을 찾습니다

후원자 여러분들이 베풀어주신 사랑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한센인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부금 지정 단체인 한국한센총연합회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후원 방법** 계좌 송금 및 물품 기부를 위한 문의 또는 홈페이지 후원접수
- **후원 기간** 상시
- **후원 계좌** 국민은행 433401-01-330682 (사)한국한센총연합회
※ 입금 후 연락 바랍니다.

Q&A



Q 후원관련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A Tel. 02-1566-2339로 연락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후원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A www.hansenkorea.org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Q 카카오톡으로 문의 가능한가요?

A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 후 채팅으로 문의주세요.
(아이디 : 한국한센총연합회)



• 2021-2022 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안내 •

● 지원대상

만 75세 이상 (1946.12.31. 이전 출생자)

● 지원기간

2021.10.12.(화) ~ 2022.2.28.(월)

만 70~74세 (1947.1.1. ~ 1951.12.31. 출생자)

2021.10.18.(월) ~ 2022.2.28.(월)

만 65~69세 (1952.1.1. ~ 1956.12.31. 출생자)

2021.10.21.(목) ~ 2022.2.28.(월)

● 접종기관 :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 (보건소는 방문 전 확인 필수)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건강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 하기



보호자와 접종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대상자, 보호자는 코로나19증상
있을 시 내원 전 알리기



접종 후 현장에서 15~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예방접종 도우미 바로가기



안드로이드폰용
QR코드



아이폰용
QR코드



스캔하기

*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숨 쉬는 방법을 잘 모른다

경희의료원
폐장호흡내과 김관일 교수

우리는 1분에 15회, 하루에 2만 회, 1년에 790만 회 정도 호흡을 한다.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호흡을 하며 평생 살아간다. 그런데 제대로
된 방법으로 호흡을 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호흡이란 단어는 ‘내쉴 호(呼)’와 ‘들이마실 흡(吸)’으로 이뤄진다. ‘들이마신다(흡)’는 말보다 ‘내쉰다(호)’는 말이 먼저 온다는 것을 기억하자. 호흡에 있어서는, 내쉬는 게 우선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들숨에 비해 날숨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숨을 잘 쉰다’는 것은 체내에 남아 있는 공기를 잘 내뱉고 신선한 공기를 잘 들이마시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올바른 호흡을 위해서는 마신 공기를 충분히 비워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보자. 체내에 들어온 공기가 밖으로 온전히 빠져 나가지 않고 폐에 남아있게 되면, 밖에서 다시 폐로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의 양도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 우리 몸은 새로운 산소 공급을 통해 생명이 유지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내 몸 안에 오래된 공기가 계속 머문다면 과연 몸이 건강할 수 있을까?

▶ 호흡 잘하는 방법

호흡을 할 때는, 숨을 충분히 들이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의 숨이 최대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끝까지 내뱉는 것이 중요하다. 충분한 양을 들이마시고 최대한 노폐물을 없앤다는 생각으로 가늘고 길게 “후~” 내뱉어 주도록 한다. 호흡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보자. 두 팔을 45도 방향으로 뻗고 숨을 들이마실 때 팔을 약간 바깥으로 돌려준다. 이렇게 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펴지면서 공기가 몸속으로 더 쉽게 잘 들어올 수 있다. 반대로 숨을 내쉴 때는 팔을 안쪽으로 돌리고 몸을 살짝 숙여준다. 공기가 최대한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작이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하고 숫자를 세면서 하루 2~3분씩 의식적으로 호흡 연습을 하면 올바른 호흡 습관을 들일 수 있다. 이때 금연은 기본. 유산소 운동으로 폐활량을 늘려주면 더욱 좋다.



“숨쉬기 운동 하나는 잘한다고, 농담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숨쉬기 운동 잘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폐를 움직이는 호흡근과 횡격막도 나이가 들면 노화되어 폐의 움직임을 저하시킵니다. 그러면 당연히 호흡 능력도 떨어지지요. 하지만 올바른 호흡 습관으로 호흡근과 횡격막을 잘 단련해두면 나이가 들어도 호흡 기능이 떨어지지 않아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답니다.”

▶ 숨쉬기 운동의 포인트는 횡격막과 호흡근

폐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실제로 폐를 움직이는 것은, 주변의 근육(호흡근)과 횡격막(가로근)이다. 많은 사람이 가슴만 살짝살짝 움직이는 식으로 얇게 숨을 쉬는데, 이렇게 하면 횡격막과 호흡근이 아주 조금만 움직인다. 반대로 깊게 숨을 쉬고 내쉬면 횡격막과 호흡근이 수축했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범위가 넓어지는데, 이 과정을 규칙적으로 반복해주면 횡격막과 호흡근의 움직임이 유연해진다. 이런 방식으로 몸속의 공간을 몇 mm만 더 만들어줘도 체내 들어오는 공기의 양은 훨씬 많아진다. 또한 횡격막이 부드럽게 잘 움직이면 주변의 부교감신경 수용체들을 자극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소화작용도 좋아진다.

▶ 입으로 숨 쉬면 일어나는 일들

올바른 호흡을 위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입이 아닌 ‘코’로 숨을 쉬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강호흡은 가장 나쁜 호흡 습관 중 하나다. 코는 섬모가 있어 이물질을 거르고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지만, 입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쉬면 이물질이 여과 없이 그대로 몸속으로 들어온다. 또한 온도와 습도 조절이 이뤄지지 않아 세균과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 구강 내 pH(산성도)를 낮춰 입 냄새, 충치, 치주질환 등의 원인이 되고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을 유발하기도 한다. 구강호흡을 오래하면 턱이 좁아지고 치열의 구조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무심코 하는 구강호흡. 하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영향을 끼친다. 구강호흡이 선천적인 이유라면 치료가 필요하고, 후천적인 이유라면 반드시 습관을 개선하도록 하자. 입은 먹는 기관이다. 호흡은 ‘코’로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올바른 방법으로 호흡을 해야 노화도 늦추고, 질병 발생률도 낮추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가을

면역력을
높이는 과일
4 가지



선선한 가을 날씨!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 걸리기가 쉬운데요.

가을, 면역력 높이는 제철과일 4가지를 소개합니다.

① 감

- ▶ 굴보다 비타민C가 2배나 더 많이 함유된 감은 감기예방 및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하루 반개만 먹어도 비타민C의 하루 권장량 (100mg)을 채울 수 있고, 비타민A도 풍부해 눈의 피로를 해소해주며 안구 건조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 석류

▶ 석류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를 촉진해 갱년기 증상 개선으로 유명한 과일입니다. 항산화성분인 폴리페놀과 비타민C 성분이 풍부해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며, 라이코펜 역시 백혈구의 기능을 향상시켜 몸의 면역력을 증진시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도 많이 함유돼 있어 피부주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유자

▶ 비타민C가 레몬보다 3배나 많이 함유된 유자! 비타민C뿐만 구연산도 풍부해 피로회복에 효과적이며, 리모넨 성분이 목의 염증 완화 및 기침 해소에 탁월합니다.



◀ 무화과

▶ ‘여왕의 과일’이라 불리는 무화과에는 항산화물질인 폴리페놀이 함유돼 있어 활성산소 제거 및 피부노화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A, B, C, E와 무기질이 풍부해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또한, 당분이 포도당을 생성시켜 피로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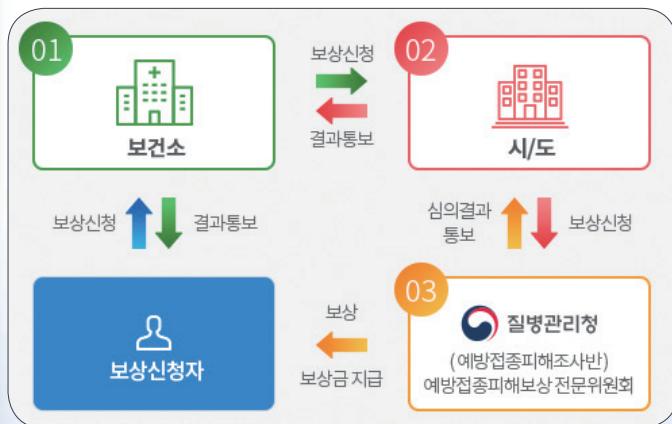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체/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피해 국가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서 달라진 것이 있나요?
 - ▶ 피해보상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완화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절차



- ① 보건소(시장·군수·구청장은)는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상신청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
- ②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이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도 피해조사보고서는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등으로 갈음
- ③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기초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평가하고,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합니다.
 ※ 심의기한: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자 구비서류

▣ 보상신청권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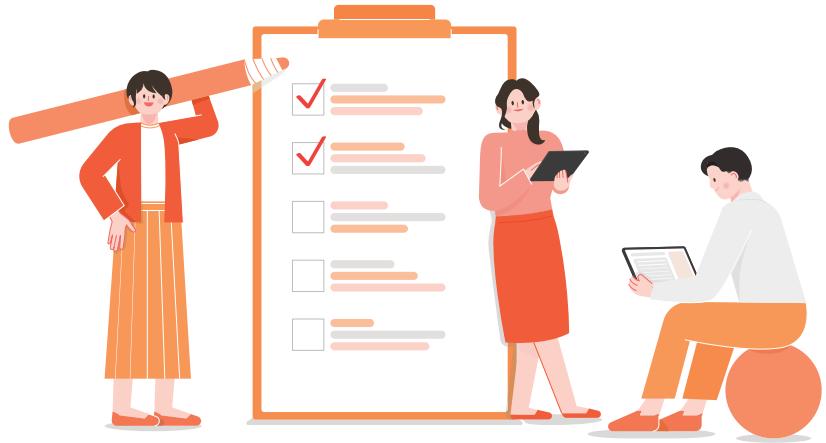
진료비 및 간병비⑧ 신청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소액절차)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⑥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⑥ 의무기록 사본 1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⑦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⑥ 1부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①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⑨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①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② 사망진단서 1부 ③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부검소견서 1부(부검소견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 ⓐ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 ⓑ 접종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무기록 사본 제출
 - ⓒ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
-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함

출처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보상심사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 일문일답



Q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 진료비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Q 예방접종피해를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Q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코로나19 예방접종받은 사람의 신분증(또는 신청인과 보상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의무기록사본(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예방접종 전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사본(있을 경우,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Q 간병비는 어떤 경우에 신청 가능한가요?

A 정액간병비는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사망보상금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부검소견서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는 진단일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곤한 느낌이 들어서 영아제 수액을 맞았는데 보상이 되나요? 그리고 피해보상 시, 진단서 등 제증명료도 지급되나요?

A 제증명료,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및 물리치료 등의 항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에 포함



Q 진료비 영수증에서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소액보상'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삭감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삭감액은 병실차액, 보호자 식비, 제증명료, 물리치료 및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등의 항목을 포함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료기관 내원 시 받은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소액보상 기준이 되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30만원 미만)에는 합산되지 않으나,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코로나19 검사비용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Q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이, 2차 예방접종 후 동일한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할 경우 재보상이 가능한가요?

A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이, 2차 예방접종 후 1차 예방접종과 동일한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 다만, 1차 · 2차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금액 합산 총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차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이라도 2차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시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피해보상 절차를 적용 받게 됩니다(본인부담금 합산 총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절차 적용 가능).

Q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 신청금액을 여러 차례 나누어 보상 신청할 경우 계속해서 소액절차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동일인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보상을 여러 차례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도 기존 신청금액을 합산합니다. 본인부담금의 합산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이 되는 피해보상 신청 건부터는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피해보상 절차를 적용받게 됩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금액 합산 총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절차 적용 가능)

Q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응급실 등에 내원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진료가 가능한데, 코로나19 검사 비용도 보상이 되나요?

A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응급실 등에 내원할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진료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코로나19 검사 관련 본인부담금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Q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신청 건 중 “코로나19 백신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확인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A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소액보상이나, 인과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보상이 결정됩니다.

Q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을 직장 동료가 대신 해주어도 되나요?

A 안됩니다. 보상신청의 경우 보상대상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보상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하 “보호자”)이 보상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보상신청 시, 신청자 본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해야 하고,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신청인과 보상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언제 지급 결정이 되나요?

A 「감염병예방법」제7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바탕으로 보상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몸이 차가우면 ‘이런 증상’ 생겨요

“손발이 차갑다”

몸이 유독 차가운 사람이 있죠?

몸이 차가울 때 생기는 증상입니다.



◆ 복통

몸이 냉할 때는 가장 먼저 아랫배에 집중!
아랫배가 차가우면 소화불량에 잘 걸리고 장이
굳어서 변비가 생길 수도 있으며 심할 경우 설사가
유발됩니다.

◆ 등과 목 근육 뻣뻣

냉기가 등 부위를 타고 올라가면 등이나 목 근육
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돼 근육이 잘 뭉치고
빼근합니다. 이 증상이 심해지면 거북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척추까지 틀어질 수 있습니다.



◆ 두통

차가운 기운이 등과 목, 어깨를 지나 머리 쪽에 쌓이게 되면 머리가 경직되고 ‘콕콕’ 쑤시는 듯한 두통이 유발됩니다.



◆ 잦은 소변

배가 차가우면 조그마한 자극에도 방광이 쉽게 수축돼 소변이 자주 마렵습니다.



◆ 무릎 통증

차가운 냉기가 하체, 무릎 쪽으로 내려가서 냉기가 돌면 혈액순환이 이뤄지지 않고 무릎 주변의 근육도 약하게 되면서 무릎과 다리에 통증이 유발됩니다.



몸이 차가우면 다양한 질환에 노출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서 원활한 혈액순환은 물론
면역력도 향상시키세요!

온찜질, 반신욕, 족욕, 가벼운 산책, 규칙적인
운동, 따뜻한 물 마시기 등
몸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효중 이 책**”



다산의 철학 소란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인문학 편지

윤성희 지음 | 포르체

소란하고 분주한 세상, 우리에게는 좋은 길잡이가 필요하다!
다산이 올곧이 지켜온 철학에서 발견한 인생의 방향성
오늘날에도 유익미한 32가지 다산의 통찰을 만나다

빠르게 변화하며 끊임없는 요구를 쏟아내는 세상에서 우리는 부담과 혼란을 느끼며 살아간다. 소란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에게 알맞은 속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나의 속도를 지키기는커녕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기에만 급급한 우리에게 이 책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다산의 철학을 보여준다. “마음을 놓고 염려하지 말고 천천히 세월을 기다리는 것이 합당한 도리이니(…)" 다산이 큰이들 학유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견한 이 문장은 우리보다 한참 앞서 달려가고 있는 시간을 따라갈 엄두조차 나지 않는 마음을 위로한다. 저자는 정약용이 살았던 조선시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그 사이의 접점을 포착하여 다산의 편지에 담긴 그의 철학을 현재의 시점에 알맞게 녹여냈다. ‘사는 게 버거울 때는 잠시 쉬어갈 것’, ‘꿈을 잃지 않되 현실에 충실할 것’ 등 저자가 현대적인 시각으로 발견해낸 32가지의 실천 방향은 수많은 이야기가 쉬지 않고 오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잃지 않고 지켜낼 수 있게 도울 것이다. 『다산의 철학』에 담긴 다산의 위로와 공감, 조언의 목소리를 들어보길 바란다.



매일 척추 허리디스크, 척추협착증, 목디스크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운동법

은상수 지음 | 북레시피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질환은 왜 생길까?”
척추 질환의 원인, 운동법, 치료, 수술 방법까지 총망라한 건강 실용서

“움직임이 있는 곳에 통증이 있다.”

“허리, 목은 숙이지 말자.”

이것만 알면 척추 질환을 극복할 수 있다!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위한 『정형외과 운동법』에 이은 청담 우리들병원 은상수 원장의 두 번째 필독서 『매일 척추』는 척추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면서 실용적으로 풀어쓴 책으로, 전문적이지만 겸손하고 포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만큼 일반 독자들이 다가가기 쉽고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설명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척추, 관절로 인한 문제는 대부분 생활 습관에서 오는 병으로 본인이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운동만 제대로 하면 약, 주사, 수술은 피할 수 있다”라고 앞서 말했듯이 저자는 무엇보다 자기 관리와 제대로 된 운동법으로 많은 부분을 고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허리디스크, 척추협착증, 목디스크 외 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북목, 라운드숄더 등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뿐만 아니라 효과 있는 운동법을 기술한 이 책은 160여 장의 컬러 일러스트와 엑스레이 CT, MRI 사진 등 총 200여컷의 이미지를 실어 더욱 알찬 정보를 제공한다.

자료 제공 : 교보문고

이 달의
사자성어

切 磔 琢 磨
임 중 도 원

[切]맡길 임 [磋]무거울 중 [琢]길 도 [磨]멀 원

바로 뜻

맡겨진 일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뜻의 사자성어이다. 큰일을 맡아 책임이 무거움을 나타내거나, 막중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도량이 넓고 뜻이 굳세어야 함을 강조할 때 쓰인다.

깊은 뜻 / 유래

맡아서 해야 할 임무는 막중한데 갈 길은 멀다는 뜻이다. 큰일을 맡아 책임이 무거운 것을 나타내거나, 긴 시간 동안 중대한 임무를 띠고 있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막중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도량이 넓고 뜻이 굳세어야 함을 강조할 때 쓰이기도 한다.

임중도원의 출전은 《논어(論語)》〈태백편(泰伯篇)〉으로, 이 편에 실린 “선비는 도량이 넓고 의지가 굳지 않으면 안되니 임무는 막중하고 갈 길은 멀기 때문이다. 인(仁)의 실현을 자기의 임무로 삼았으니 이 또한 막중하지 않은가? 죽은 뒤에야 그만둘 것이니 이 또한 멀지 않은가?(士不可以不弘毅 任重而道遠. 仁以爲己任 不亦重乎 死而後已 不亦遠乎)”라는 증자(曾子)의 말에서 유래한다.

한편, 《교수신문》은 정부가 추진 중인 다양한 개혁과제가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이 남아 있다면서 2018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임중도원을 선정하였다.

자료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이렇게 사용하세요!

“우리 회사가 처한 처지가 ‘임중도원’처럼 짐은 무겁지만 우리 임직원 모두가 함께하면 먼 길도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국어 교실

교통수단,
중국어로
어떻게 할까?

단어

- | | | | |
|--------------------------------|-----|---------------------------|------|
| 1. 火车 lhuōchē / 후오츠어] | 기차 | 7. 推土机 ltuītǔjī / 투에이투지] | 불도저 |
| 2. 汽车 qìchē / 치츠어] | 자동차 | 8. 货车 lhuòchē / 후오츠어] | 화물차 |
| 3. 公共汽车 gōnggòngqìchē / 꽁꽁치츠어] | 버스 | 9. 摩托车 mótuōchē / 모투어츠어] | 오토바이 |
| 4. 救护车 jiùhùchē / 찌우후츠어] | 구급차 | 10. 自行车 zìxíngchē / 쯔싱츠어] | 자전거 |
| 5. 警车 jǐngchē / 징츠어] | 경찰차 | 11. 船 chuán / 추안] | 배 |
| 6. 消防车 xiāofángchē / 시아오팡츠어] | 소방차 | 12. 飞机 fēijī / 페이지] | 비행기 |

낱말 퀴즈

	6			
1				2
3		4		
	5			

가로힌트

- 경제적 곤경 및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한센인에게 결혼식을 통해 사회적 편견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도모하는 총연합회 대표 복지사업.
-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여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 행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경우와 형식적인 권한만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전자에 속한다. 문재인 ○○○.

세로힌트

- 「까마귀가 모인 것 같은 무리」라는 뜻으로, 질서(秩序) 없이 어중이떠중이가 모인 군중(群衆) 또는 제각기 보잘것없는 수많은 사람.
- 끼니와 끼니 사이에 음식을 먹음. 또는 그 음식.
- 운동 경기 따위에서 마지막으로 승부를 가리는 시합.

| 지난호 정답 |

	백	화	점	
정	신		심	
문				
일	요	일		
침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지난호 당첨자 : 우*희, 김*태

| 참여방법 |

- 우편, 이메일, 총연합회 카카오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 우편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아이리스빌딩 2층 (사)한국한센총연합회 한센지 담당자 앞
 - ◆ 메일주소 : hansen@hansenkorea.org
 - ◆ 카카오톡 : '한국한센총연합회'로 검색 및 채널 추가 후 정답 전송
 - ◆ 보내실 내용 : 성함, 주소, 휴대폰 번호, 정답(정답이 기재된 사진 또는 종이)
 - ◆ 문의전화 : 02)1566-2339 (정답은 다음호에 실립니다)

| 한센 게시판 |

한센인(병) 관련 유물을 찾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기념관 전립·운영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은 한센인 또는 한센병 관련 유물을 기증(서약)받고 있습니다.

-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
- 한센시설(병원) 생활유품 또는 기록
- 한센가족 후원 또는 봉사 관련 자료
- 한센가족 작품(문학, 미술, 음악, 사진 등)
- 기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한센인과 함께 만드는 종합정보소식지 ‘한센’

원고 모집 공고

● 응모 대상 : 제한없음

● 응모 기간 : 상시접수

● 원고 내용 및 분야

- ★ 한센인 관련 미담, 에피소드, 봉사 수기
- ★ 한센인 창작 또는 한센인 소재 문학 : 시, 소설, 수필 등 제한없음
- ★ 한센인의 생활현장, 민원 등 지역 소식
- ★ 한센인 관련 정책·학술·역사 자료
- ★ 한센인 관련 다양한 분야의 칼럼
- ★ 기타 「한센」 게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원고

● 응모 방법

- ★ 제출처 : 총연합회 한센지 담당자 ★ 전화문의 : (02) 1566-2339
- 우편제출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 팩스제출 : (02) 1566-2032
- 이메일제출 : hansen@hansenkorea.org





한국한센총연합회의 후원자가 되실 분을 찾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한센총연합회는...

한센인의 인권회복 및 권리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한센인의 사회적 수용을 촉구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법인 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한센인에게 사랑과 희망을!

후원자 여러분들이 베풀어주신 사랑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언제나 따뜻한 사회,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사)한국한센총연합회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사)한국한센총연합회 후원회장 김정남

후원계좌 국민은행 433401-01-330682 한국한센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한센총연합회 중앙회 및 지부 주소

중 앙 회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TEL.1566-2339 FAX.1566-2032
서울 · 중부지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9길 10-20(방배동 202호) TEL.(02)532-6777 FAX.(02)532-9050
부 산 지 부	부산시 서구 구덕로 124번길 3 TEL.(051)245-8207 FAX.(051)245-8206
인 천 지 부	인천시 부평구 서달로 298번길 60 TEL.(032)515-5501 FAX.(032)515-5504
경 기 지 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1 402호 TEL.(031)973-5329 FAX.(031)973-3178
전 북 지 부	전북 김제시 갈공길 21 TEL.(063)542-7822 FAX.(063)545-7820
광주 · 전남지부	광주시 북구 벼들로 23 동방빌딩 3층 TEL.(062)524-3485 FAX.(062)524-3484
대구 · 경북지부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4길 5 TEL.(054)971-8975 FAX.(054)977-8975
울산 · 경남지부	경남 함안군 군북면 방어산로 618 TEL.(055)584-4333 FAX.(055)584-4332

‘한센’ 편집 자문위원

위 원 장	우홍선(사무총장)
위 원	박영립((재)화우공익재단 이사장), 신재균(법무법인 서해 변호사), 옥춘광(작가)
기 획	석자현

(사)한국한센총연합회 소개

(사)한국한센총연합회는...

1969년 10월 13일 발족되어 한센인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한센인의 사회적 수용을 촉구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핵심가치

HARMONY
HOPE

HAPPINESS

한센가족과 국민 모두의 소통을 통한 편견 해소

한센가족의 사회통합과 재활에 대한 소망 실현

전 세계 한센가족의 인권과 복지 증진

★ 비전 ★

- 차별과 편견이 없는 행복사회 실현
- 한센사업의 역할 모델로 위상 제고
- 한센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구축
- 한센사업 전문기관으로 역량 강화

★ 미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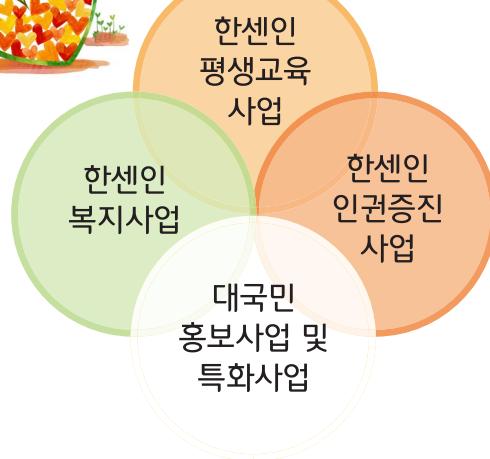
- 한센인의 보건 복지 증진
- 한센인의 권리 보호 강화
- 한센인의 사회 통합 지원
- 한센인의 인권 신장 확대



★ 사업목표 ★

- 한센인 관련 법, 제도 등의 개정 및 제정
- 한센인의 보건복지 등 삶의 질 향상
- 한센 관련 단체와 연대 강화
- 한센인(병)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교육 홍보
- 한센인 권리 증진
- 한센인 사회 통합 지원
- 미래지향적인 한센정책 수립
- 국제 교류 협력 확대
- 한센인피해사건 기념관 건립
- 한센 관련 정책을 통한 주도적 위상 제고

★ 사업소개 ★



★ 로고 ★



Shaping Better Future

사단법인

한국한센총연합회
THE KOREAN FEDERATION of
HANSEN ASSOCIATIONS

한센가족(hansen)을 상징하는 'h'로 한센가족과 국민 모두가 눈높이를 맞춰 소통으로 하나되고 대한민국 한센사업의 통합과 한센가족의 희망찬 미래와 행복 실현을 위한 열정을 형상화함

| 총연합회 공식 SNS 채널 |



더 나은 미래로



더 나은 미래로



더 나은 미래로



더 나은 미래로

트위터

페이스북

지구의 모든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안식처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 이제 평화로운 삶을 누리십시오.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는 고령한센인을 위한 노인 친화적 환경의
무료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네트워크로 고령한센인의 정서와 문화 그리고 공감을 포괄할 수 있는
전인적 관점의 사회통합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사례관리
인권개선운동
재활·치료 프로그램



지역사회교류 활성화

지역사회 기여 실천
보편적 협력기관 확대
긍정적 환경마련



노후생활 안전보장

1:1 개별 서비스
요양·보호·여가 지원
안정적 생활환경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EVERGREEN WELFARE CENTER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산2길 116-15 | TEL : 043) 241-1300 / FAX : 043) 241-1302
E-mail : egwc1300@egwc.or.kr | 홈페이지 : <http://www.egwc.or.kr>